



번혁의 물결이 넘치는

(구) 소련

(3)



배순덕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은 중후하면서도 장대한 바로크양식의 건축물을 좋아했다. 그래서 스탈린의 생전에 지어진 일곱개의 건축물들은 그 화려하고 장대한 외양때문에 곧잘 모스크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거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스탈린은 생전에 모두 여덟개의 건축물을 계획했으나 일곱개만 완성하고 죽었다고 한다. 그 일곱개의 스탈린양식 건축물들은 이십육층에서 삼십이층까지 모두 고층빌딩으로 되어 있고, 여덟번째 고층빌딩이 될 뻔했던 민스크호텔은 스탈린 사망 후에 후계자인 후루시초프에 의하여 비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다.

레닌언덕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은 그러한 스탈린양식의 건축물 중 가장 큰 것이다. 정면의 길이가 450m에 높이가 240m, 중앙의 첨탑부분은 삼십층 높이로 이 대학의 관리부가 있는 곳이고, 그 양옆의 십칠층짜리 건물은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1756년에 개교를 하였고, 첫 건물은 크레믈린의 북쪽 붉은 광장에 있었으나 1953년 레닌언덕 위에 있는 지금의 장소에 스탈린 양식의 새 캠퍼스가 완성되자 이전을 하고, 그곳은 지금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과 인문계열에 모두 16개 학부가 있고 약 3만2천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도했을 때 사람



▲ 모스크바 대학의 본관 건물에 새겨진 대형 부조

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저 만치서 머리에 수건을 쓴 뚱뚱한 아주머니가 기계를 엉뚱거리며 잔디를 깎고 있을 뿐이었다. 전통과 역사가 깊은 학교일수록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가 느껴지듯이 멀리서 바라다보이는 모스크바대학의 전경 역시 수십개 성상을 견디어 온 시간의 무게와 축적된 자존심으로 인해 누런 황금빛으로 빛나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니, 이집트의 벽화처럼 딱딱한 틀 안에 갇힌 기하학적 무늬와, 사람의 모습이 새겨진 대형부조가 대학 본부의 높은 건물벽에 무겁게 장식되어 있었다. 운동경기장의 관람석처럼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강의실과 비좁은 강단, 그 곳에서 만난 모스크바대학의 철학학부 교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스탈린의 정치사상, 그리고 위기

에 직면해 있는 소련경제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토지의 사유화와 소규모 개인기업체의 소유권 인정 등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다원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했다. 경제재건을 위한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국가재정의 불균형으로 소련은 지금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

그렇게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빈곤의 그림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모스크바거리의 외형과는 대조적으로, 도시 여러 곳에서 훨씬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다. 보행자들의 천국이라는 아르바트 거리도 그러한 모습이 엿보이는 곳 중의 하나이다.

아르바트 광장에서 스탈린양식의 소련 의무성 건물이 있는 곳까지, 러시아 귀족들의 전통이 남아 있는 그 거리는 그 옛날 프쉬킨이나 뚜르케네프와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그 때는 한적하고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지금은 그 거리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과 각종 전문 직업인들이 몰려있는 변화가로, 시장 골목처럼 북적맸다.

과자, 빵, 음식점, 대장간, 기념뻬지, 엽서, 옷, 책, 인형, 그림,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점과 노점상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앓은뻬이 보조의자를 몇개 놓고서 보행자를 유혹하는 초상화가들도 있고, 또 한쪽에는 구두수선 공과, 바구니를 앞에 놓고 기타와 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는 작은 악단들도 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 거리가 거의 끝나는 곳쯤에 여러가지 빛깔의 페인트로 써 놓은 그림같은 낙서와, 사람들 틈바구니를 오가며 모이를 찾아 종종걸음을 치는 비둘기떼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게 해 재미가 있긴 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입었던 분홍색 스웨터 하나를 달랑 들고 서서 팔아줄 사람을 찾고 있는 러시아 여인의 그늘진 얼굴이나, 어깨에 가방하나만 달랑 메고 다니다가 관광객이나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손을 내미는 몇몇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이제껏 피상적으로만 느껴왔던 소련 경제의 어려움은 훨씬 심각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아르바트 거리에서 만난 거리의 악사들



그날 저녁은 고려식당이라는 곳에서 한국식 나물과 불고기가 곁들여진 저녁식사를 했다.

눈코 뜰 새없이 바쁜 여정과 입에 맞지 않는 식사에 힘들어 하던 참이라 일행은 모두 환호했다. 식당 안쪽에는 작은 무대가 있고 그 곳에서 서너명의 남자 악사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소련에 거주하고 있다는 교민대표 몇분이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파란 눈에 금발을 한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러시아 아가씨가 나와서 다소곳한 인사와 함께 아리랑 등의 우리 민요를 열창했고, 악사들 또한 귀에 익은 우리의 선율을 계속하여 들려 주었으나 나는 별반 흥이 일지 않았다. 우리가락, 우리 정서의 끈끈함이 배어있지 않은 그녀의 음색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앉아 우리의 식사를 지켜봐 주는 교민들에게 내내 미안스러웠기 때문이다.

중국을 여행할 때였다.

그 곳이 어느 마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여행 중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던 한적한 마을의 식당 마당으로 주뿔거리며 다가오던 초라한 행색의 중년여인 생각이 났다.


경상도 어느 산골이 고향이라는 그녀의 부모가 일제의 만행을 피하여 중국을 떠돌다가 정착하여, 자신은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그 부모는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자신 역시 생전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보지도 못한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로부

소련 땅에서 만난 우리 교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중국에서 만났던 어느 중년 여인 생각이 났다.

터 고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굴이나 볼까하고 허겁지겁 달려왔다고 했다. 우리네 할머니들처럼 훌쩍이며 옷자락에 눈물을 찍으며 뉘두리를 늘어 놓던 여인은,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잡았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면서 혼자 말처럼 되뇌이던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찢었다.

“고국은 잘 산다는데, 그 잘 사는 고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광도 잘 다니는데, 나는 언제나 고국에 한 번 가보나.”

흐릿하게 중얼대며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은 여행기간 내내 나를 부끄럽게 했었다. 그런데 소련 땅에서 만난 우리 교민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문득 그 여인 생각이 났던 것이다.

여행은 생각만으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러 모습으로 일깨워 주는 것 같다.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